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에 대한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효과

Effects from the Interaction of Ego-Resilience, Social Supports in the School Adjustment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송영경 · 김영희* · 황성실

충북 아동가족 상담연구소 ·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 주성대학교 아동복지학과

Song, Young Kyoung · Kim, Yeong Hee* · Hwang, Seong Sil

Chungbuk Child & Family Counseling Center

Dept. of Child Welfar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Dept. of Child Welfare, Juseong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teractions of ego-resilience and social supports in the school adjustment in children.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479 children drawn from the fourth and sixth grades of three elementary schools in Cheongju city. The pilot study was done to examine the applicability of survey instruments. Data was analyzed by frequency, percentage, Cronbach's t-test, ANOVA with Tukey post-hoc test, correlation, and hierarchial analysis using the SPSSWIN program.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we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s showed that the effects of the interaction of ego-resilience and social supports on school adjustment we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children's gender and age. Second, teacher supports had influence on school life satisfaction, interest in the subject, attitude in class, and observance of school rules according to the children's gender and age. Finally, overall, the influence of school life satisfaction, interest in subjects, attitude in class, and observance of school rules was greater for girls than boys.

Keywords: ego-resilience, social supports, school adjustment

I. 서론

아동은 부모와 주위사람 그리고 대집단 속에서 다양한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점점 사회에 적응하는 힘을 길러나간다. 아동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가정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학교, 사회, 그리고 또래 집단과 새로운 관계를 갖게 되어 많은 적응 요구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러

한 과정에서 때때로 아동은 부적응을 느낄 수 있다. 청소년의 60%가 학교생활이 불만족스럽고, 학교생활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며, 이로 인해 비행과 학교폭력 및 학교 부적응은 비단 청소년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보고되고 있다(청소년통계연보, 2002). 김희수(2004)는 아동의 최초 가출 평균 연령이 12.7세로 초등학교 5, 6학년이 54%를 차지하며, 학교 내 폭력 피해경험은 초등학생이 24.3%, 중학생이 19.9%, 고등학생이 11.3%로 아동들의 학교 부적응 행동

* Corresponding author: Kim, Yeong Hee
Tel: 043-261-3147
Email: enjoy@chungbuk.ac.kr

이 점차 저연령화 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초등학생의 적응문제를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아동의 19.3%는 학교 적응과 관련된 문제를 고민하며, 스트레스 요인 중에는 학교적응 요인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원희, 오윤자, 2008). 학교적응을 잘 하는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자아존중감과 사회성기술이 높고, 내면화 및 외현화문제가 낮았다(이정윤, 이경아, 2004). 반면,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아동은 후에 높은 공격적 행동과 불안 등의 문제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박현선, 1999; 한미라, 1997). 더욱이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부적응은 초등학교 생활 뿐 아니라 이후 중·고등학교 생활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며 심지어 사회적인 부적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Ladd *et al.*, 1996). 이처럼 아동기의 학교적응은 청소년기나 성인기에서의 적응력을 높이는 데 주요변인으로 밝혀지면서 아동기 학교적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Bagwell *et al.*, 1998).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는 아동의 학교적응을 학업성적이나 학업성취로 개념화하여 평가하고 있으나, 근래에는 학업수행 뿐 아니라 학교 학습태도, 학교 행사활동, 학교 생활의 만족도 및 규칙준수, 또래와 교사와의 관계, 수업시간의 태도 및 교과에 대한 흥미 등을 전반적인 학교적응 요인으로 개념화하고 있다(김홍재, 1995; 노숙영, 1998; 최장숙, 1993; Birch & Ladd, 1997). 아동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아동은 학교에 적응을 잘 할뿐 아니라 학습태도나 교사·친구와의 관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최희옥 외, 2005). 또한 학업에 대한 흥미와 관심 및 수업시간의 태도는 학업성취나 학업성적과의 관련성이 높아 결국 학업에 대한 성취감으로 인해 아동은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신나나, 도현심, 2000). 또한 학생이 학교생활의 규범이나 질서 등을 잘 지키므로써 아동 자신도 학교생활에 만족하며 결국 학교에 적응한다고 밝혀져 있다(최상미, 2003). 이렇듯 초등학교 아동의 학교 적응은 이후의 적응을 예측해주는 요인이 되어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으며, 학교생활 만족, 교과 흥미, 수업시간의 태도 및 학교생활의 규칙 등 학교생활의 전반적인 요인들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친다.

아동의 학교적응에 관련된 선행연구에 의하면 학교적응에 관련된 변인을 크게 개인적 변인과 환경적 변인으로 구분하고 있다(김옥선 외, 2005; 송창용, 2003; 신윤자, 2005; Berndt & Keefe, 1995; Brown & Cowen, 1989; Dubow & Tisak, 1989). 학교 적응에 관련된 개인적 변

인으로는 아동의 성과 연령, 학업성적, 자아개념, 자아존중감, 문제해결능력(이훈진, 1999; 임정순, 1993; 장호성, 1988; 한미라, 1997) 등이고, 환경적 변인으로는 가족구조, 부모-자녀 의사소통, 부모의 양육태도, 가족응집성 등이 있다(김태희, 1996; 남상인, 1983; 박수정, 1998).

최근 들어 아동의 학교적응을 설명하는 개인적 변인으로 자아탄력성이 부각되고 있다. 자아탄력성이란 변화된 상황적 요구들에 대해, 특히 좌절되고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상황에 마주했을 때 경직되기 보다는 유연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말한다(Block & Block, 1980). 본래 자아탄력성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현상으로써 다루어졌으나 점차 인간의 적응을 보호하기 위해 지니고 있는 능력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즉,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이 때문에 위협에 빠질 것인지 아니면 불안하지만 이겨내는 전략으로 자신을 변화시킬 것인지를 적응체제를 유지하는 성격체제로서 이해되고 있다(Block & Kremen, 1996; Bonanno, 2004; Masten, 2001). 이러한 자아탄력성은 부적응을 방지하고 대처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Cicchetti & Toth, 2000), 불안에 대한 민감성을 낮추고 삶에 긍정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고 하여(Block & Kremen, 1996), 적응과 관련된 연구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자아탄력성을 살펴본 대부분의 연구는 학대아동이나 이혼가정의 아동과 같은 특별한 조건에 놓여있는 대상이 주를 이루고 있거나, 특별한 조건이 아닌 경우에는 성인과 청소년이 대상인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구자은, 2000; 유성경, 심혜원, 2002; 현은민, 박혜영, 2005; D'Abreu *et al.*, 1999; Rak & Patterson, 1996). 최근 들어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부모갈등과 아동의 부적응간의 관계에 자아탄력성이 중재변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밝혀졌으며(김윤희, 황순택, 2003), 가족의 위협요소와 적응 수준 간을 자아탄력성이 매개한다는 것을 밝힌 연구도 있다(유성경 외, 2004). 또한 초등학생이 인지한 가족건강성과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다(김옥선 외, 2005). 이처럼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미약한 상태로, 학교적응과 자아탄력성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의 학교적응은 아동 자신의 개인 내적인 특성 뿐 아니라 아동의 주변 환경과도 연결시켜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아동의 적응에 있어 환경적 변인으로 사회적 관계의 질은 중요한 요인이 된다. 사회적 관계로부터

제공되는 긍정적인 자원 및 도움에 대한 지각은 아동 자신의 심리적 적응 뿐 아니라 사회적 적응을 증진시켜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되면서 사회적 지지가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최진아, 이숙, 1996; Dubow & Tisak, 1989; Gifford-Smith & Brownell, 2003).

사회적 지지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관계에서 제공되는 긍정적인 자원으로써 여러 차원들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정의되어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아동이 실제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은 사회적 지지와 정신 병리와의 정적인 상관성이 있었으나,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는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Barrera, 1986).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지를 단일차원으로 측정했기 때문이라고 해석되고 있어 사회적 지지의 다차원적 평가가 필요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또한 Wethington과 Kessler(1986)는 지각된 지지가 제공받는 지지보다 적응을 예언하는데 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김명숙(1994)은 아동의 사회적 지지는 가족 지지, 또래지지, 교사지지로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사회적 지지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차원들 중 또래 지지, 가족지지, 교사지지와 같은 지지원을 토대로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족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은 청소년은 자아개념과 학업성취가 높았고, 학교 친구의 지지를 받은 청소년들은 또래 관계에서 자아개념이 높았다. 반면에 또래로부터 낮은 지지를 받은 청소년은 학업성적이 낮고 학교결석이 잦았다고 보고하고 있다(Felner *et al.*, 1982). 또한 부모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거나 또래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는다고 느끼는 아동은 자기가치감이 높게 나타났으며(Van Aken & Asendorpf, 1997), 사회적 지지는 초등학생의 스트레스와 적응을 중재하는 것으로 나타나(Felner, 1984; Garnezy, 1983; Wertlieb *et al.*, 1987) 아동의 적응에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아동은 성인과 달리 개인적 또는 기질적 요인과 주변 환경간의 상호작용 결과로써 적응행동을 보인다. 정신과적 장애의 진단을 받은 아동을 보면, 각 개인에게 주어진 신체적, 생물학적 요소와 그가 처해 있는 환경으로부터의 경험, 이 두 가지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심리·행동상의 적응문제를 보인다고 하였다(정성인, 1998).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고은정(1996)의 연구는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상호작용하여 우울을 크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적 변인과 환경적 변인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아동에

대해서도 개인적 변인으로 자아탄력성과 환경적 변인으로 사회적 지지가 서로 상호작용하여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리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인 변인이나 환경적인 변인의 단편적인 면만을 살펴볼 뿐 이것들이 상호작용하여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아동의 성과 연령에 따라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Simons-Morton와 Crump (2003)의 연구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학교적응을 더 잘한다고 하였으며, 남아와 여아에 따라 또래관계의 형태가 다르고 그에 따라 학교적응에 차이가 있었다(고혜진, 2003; Berndt & Keefe, 1995). 아동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족의 지지보다는 또래의 지지를 더 많이 지각하고 있으며 어릴수록 가족의 지지를 더 많이 지각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강민주, 전경숙, 1995; Furman & Buhrmeter, 1992). 구자은(2000)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학교적응에 차이가 나며, 남아보다 여아가 어머니의 지지에 의해 학교적응에 더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이은미, 박인전, 2002)에서 여아가 남아에 비해 자아탄력성이 높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남아와 여아는 부모의 자상하고 따뜻한 보살핌과 돌봄이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남아의 경우 여아와 달리 어머니 과잉통제 및 제한과는 부적인 상관성이 나타나고 있어, 성별과 연령에 따라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과 연령에 따라 학교적응에 대해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간의 상호작용효과를 탐색하여 가정과 학교 내에서 아동의 학교적응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확인해보고, 부모교육이나 상담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청주시에 소재하는 3개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4학년과 6학년 학생 479명을 대상으로 하였

다. 조사 대상자인 초등학생의 성별은 남학생이 263명, 여학생이 216명이었고, 연령은 4학년이 233명, 6학년이 246명이었다.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364명(76.5%), 한부모 가족이 52명(10.9%), 확대가족이 60명(12.6%)이었다. 아버지의 학력은 고졸이하가 158명(35.1%), 대졸 221명(49.1%), 대학원이상이 71명(15.8%)이었고,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이하가 221명(48.7%), 대졸 173명(38.2%), 대학원이상이 59명(13.0%)이었다. 아버지의 직업은 전문/자유직이 81명(17.6%), 사무직/공무원 153명(33.3%), 판매/서비스직 38명(8.3%), 자영업 103명(22.4%), 기술/생산/노무직 81명(17.6%), 무직 4명(0.9%)로 사무직이 가장 많았고, 어머니의 직업은 전문/자유직 37명(7.9%), 사무직/공무원 75명(16.1%), 판매/서비스직 54명(11.6%), 자영업 63명(13.5%), 기술/생산/노무직 17명(3.6%), 주부/무직 220명(47.2%)로 주부가 가장 많았다.

2. 측정도구

1)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은 Block과 Kremen(1996)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를 권지은(2003)이 번안·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총 14문항으로 '나는 갑자기 놀라는 일을 당해도 금방 괜찮아지고 그것을 잘 이겨낸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이 척도는 4점 Likert 척도로 '매우 그렇다' 4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인 Cronbach's 계수는 .75로 나타났다.

2)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김명숙(1994)이 개발한 것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3개의 하위변인, 즉 또래지지, 가족지지, 교사지지로 이루어져있다. 또래지지는 8문항으로 '친구들이 좋아하는 아이가 있는가하면,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다' '나는 친구들이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한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가족지지는 8문항으로 '가족끼리 서로 도와주는 집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우리 가족은 서로 많이 도와준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교사지지는 7문항으로 '선생님이 자기에게 관심이 많다고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다' '우리 선생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이 척도는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의 지

지, 가족의 지지, 교사의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지각함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인 Cronbach's 계수는 또래지지 .82, 가족지지 .87, 교사지지 .80으로 나타났다.

3) 학교적응

학교적응은 최장숙(1993)이 개발한 것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의 학위변인은 학교생활 만족도, 교과 흥미도, 수업시간 태도, 학교생활 규칙준수, 교사에 대한 태도로 이루어져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지지 요인으로 교사지지를 측정하여 척도의 하위 요인 중 교사에 대한 태도를 제외하고 학교적응을 측정하였다. 문항의 수는 총 28문항으로 학교생활 만족도는 7문항으로 '학교생활이 재미가 없다' 등의 문항을 포함하며, 교과 흥미도는 8문항으로 '나는 사회시간이 좋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수업시간 태도는 7문항으로 '수업시간에 딴 생각이 나타나 주의집중이 안 된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며, 학교생활 규칙준수는 6문항으로 '화장실이나 수도를 사용할 때 차례를 지키고 오랜 시간이라도 기다린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이 척도는 4점 Likert 척도로 '매우 그렇다' 4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대해 만족을 하는 정도가 높고, 교과에 대한 흥미가 높고, 수업시간의 태도가 좋고 학교생활의 규칙을 잘 지킴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인 Cronbach's 계수는 학교생활 만족도 .67, 교과 흥미도 .74, 수업시간 태도 .64, 학교생활 규칙준수 .72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의 예비조사는 청주시 공립 초등학교 1개교를 임의로 선정하여 4학년과 6학년 7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의 결과 측정도구의 문항에 대한 이해에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 절차의 문제점도 발견되지 않았다. 본 조사는 청주시의 3개 공립초등학교를 임의 표집하여 4학년과 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총 500부의 질문지가 배부되고 수거되었으나 질문지 내용이 부실한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479부가 연구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배경에 대한 빈도와 백분율을 실시하였다. 각 하위변인에 따른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신뢰도

분석과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하위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 상관계수를 사용하였으며, 변인들 간의 상호작용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성에 따른 학교적응에 대한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효과

성에 따른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상관관계와 각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각 변인들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는 각각.12에서 .54, .19에서 .52로 나타났다. 회귀분석에서 분산팽창계수 VIF값을 살펴 본 결과 모든 값이 3보다 작은 값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보이지 않아 각 변인들은 독립적인 개념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에 따른 학교적응에 대한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 간의 상호작용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 2단계를 수행하였다. 학교생활 만족도, 교과 흥미도, 수업 시간 태도, 학교생활 규칙준수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자아탄력성과 또래지지, 가족지지, 교사지지 3개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한 모형을 기본모형으로 설정하였으며, 추가모형은 기본모형에 사회적 지지의 3개변인 각각과 자아탄력성간의 상호작용 항을 포함시킨 모형으로 설정하였다.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모든 하위 변수를 센터링(centering)하여 다중공선성을 감소시킨 후 ‘자아탄력성 × 사회적 지지’의 항을 만들어 센터링한 모든 항과 상호작용 항을 독립변수로, 학교적응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 2단계를 실시하였다.

모형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기본모형과 추가모형의 R²을 산출한 뒤에 R²의 증가량이 유의미한지 살펴 보았다. 여기서, R²의 증가량이 유의미하다는 것은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R²의 증가량이 유의미하지 않는 경우에도 우연적으로 상호작용효과가 있을 수 있다.

<표 1> 성에 따른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 학교적응과의 상관관계

		여학생							
남학생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①		1	.52***	.33***	.28***	.24***	.19**	.36***	.23**
②		.54***	1	.42***	.41***	.38***	.33***	.40***	.39***
③		.38***	.49***	1	.34***	.25***	.29***	.35***	.29***
④		.32***	.39***	.23***	1	.40***	.42***	.46***	.38***
⑤		.19**	.19**	.12*	.42***	1	.45***	.47***	.32***
⑥		.03	.01	.13*	.29***	.44***	1	.52***	.26***
⑦		.38***	.40***	.29***	.41***	.51***	.40***	1	.39***
⑧		.23***	.31***	.18**	.24***	.33***	.21**	.48***	1
남학생	M	2.78	3.01	3.39	2.65	2.89	2.85	2.67	2.81
	SD	.43	.48	.50	.52	.53	.68	.51	.57
여학생	M	2.27	3.08	3.37	2.86	3.01	2.99	2.65	2.96
	SD	.39	.46	.60	.51	.54	.62	.48	.53

*p<.05. **p<.01. ***p<.001. 상관표의 대각선 왼쪽 아래는 남학생 자료이며, 오른쪽 위는 여학생 자료임.

- ① 자아탄력성
- ② 또래지지
- ③ 가족지지
- ④ 교사지지
- ⑤ 학교생활 만족도
- ⑥ 교과흥미도
- ⑦ 수업시간 태도
- ⑧ 학교생활 규칙준수

1) 성에 따른 학교생활 만족도에 대한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효과

성에 따라 학교생활 만족도에 관련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남학생의 경우, 위계

적 회귀분석 결과 Model 1에서는 교사지지($\beta=.40$, $p<.001$)가 학교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고, 이 모델의 변인은 남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를 17.9% 설명해 주고 있다. 즉 남학생은 교사의 지지를 많

<표 2> 성에 따른 학교 적응에 대한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효과

※남학생(여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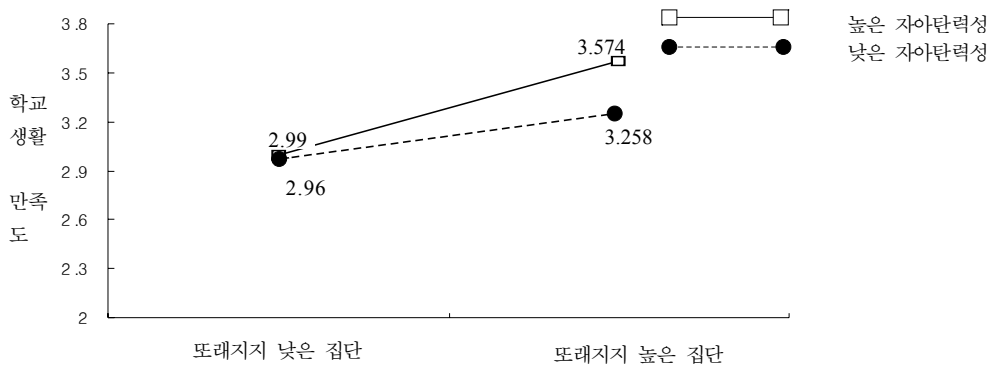
종속변수	독립변수	표준화된 β	
		Model 1	Model 2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자아탄력성	.06 (.03)	.06 (.06)
	또래지지	-.01 (.22 ^{**})	-.01 (.23 ^{**})
	가족지지	.01 (.05)	.01 (.01)
	교사지지	.40 ^{***} (.29 ^{***})	.40 ^{***} (.28 ^{***})
	자아탄력성 × 또래지지		.01(.19 [*])
	자아탄력성 × 가족지지		-.05(-.21 ^{**})
	자아탄력성 × 교사지지		.03(-.03)
	ΔR^2	.179 ^{***} (.219 ^{***})	.002(.036 [*])
	R^2	.179(.219)	.181(.255)
	교과 흥미도	자아탄력성	-.04 (-.02)
또래지지		-.17 [*] (.16 [*])	-.15 [*] (.16 [*])
가족지지		.15 [*] (.12)	.15 [*] (.12)
교사지지		.33 ^{***} (.32 ^{***})	.37 ^{***} (.31 ^{***})
자아탄력성 × 또래지지			.26 ^{**} (-.10)
자아탄력성 × 가족지지			-.02(-.03)
자아탄력성 × 교사지지			-.09(.08)
ΔR^2		.112 ^{***} (.218 ^{***})	.037 [*] (.006)
R^2		.112(.218)	.149(.223)
수업시간 태도		자아탄력성	.19 ^{**} (.16 [*])
	또래지지	.15 [*] (.13)	.17 [*] (.14)
	가족지지	.08(.13)	.11(.12)
	교사지지	.27 ^{***} (.32 ^{***})	.26 ^{***} (.32 ^{***})
	자아탄력성 × 또래지지		-.03(.07)
	자아탄력성 × 가족지지		.18 [*] (-.06)
	자아탄력성 × 교사지지		.06(.00)
	ΔR^2	.265 ^{***} (.302 ^{***})	.030 [*] (.004)
	R^2	.265(.302)	.295(.306)
	학교생활 규칙준수	자아탄력성	.07(-.01)
또래지지		.21 ^{**} (.25 ^{**})	.20 [*] (.24 ^{**})
가족지지		.02(.10)	.04(.07)
교사지지		.13 [*] (.25 ^{***})	.11(.23 ^{**})
자아탄력성 × 또래지지			-.16(.04)
자아탄력성 × 가족지지			.18 [*] (-.16 [*])
자아탄력성 × 교사지지			.04(.06)
ΔR^2		.115 ^{***} (.219 ^{***})	.017(.018)
R^2		.115(.219)	.138(.237)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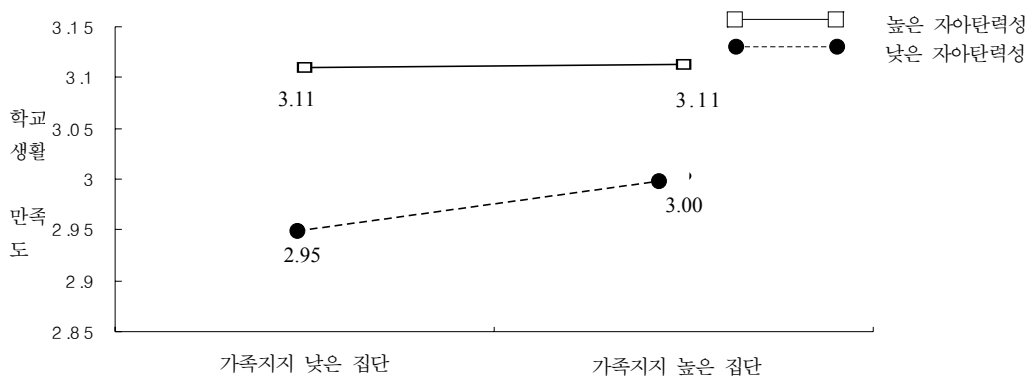
이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남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한 Model 2에서 추가된 R²는 .002로 유의한 설명력을 보이지 않았다.

여학생의 경우,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Model 1에서는 또래지지($\beta=.22, p<.01$)와 교사지지($\beta=.29, p<.001$)가 학교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고, 이 모델의 변인들은 여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를 21.9% 설명해 준다. 이는 여학생은 또래의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교사의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았다. 성에 따라 학교생활 만족도에 대한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에 따른 아동의 학교생활 만족도를 선 그래프로 나타내보고, 추가적인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상호작용효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남학생은 학교생활 만족도에 대하여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효과가 없었으나,

여학생은 학교생활 만족도에 대하여 자아탄력성과 또래 지지의 상호작용효과가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아탄력성이 높은 여학생이 낮은 여학생보다 또래지지가 학교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생활 만족도에 대하여 자아탄력성과 가족 지지의 상호작용효과가 [그림 2]와 같이 자아탄력성이 낮은 여학생이 높은 여학생보다 가족지지가 학교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탄력성이 높은 여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자아탄력성이 낮은 여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보다 또래지지에 의해 영향 받는 정도가 컸으며, 또래의 지지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여학생과 낮은 여학생 모두에서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았다. 또한 자아탄력성이 낮은 여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자아탄력성이 높은 여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보다 가족지지에 의해 영향 받는 정도가 컸으며, 가족의 지지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여학생과 낮은 여학생 모두에서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여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에 대한 자아탄력성과 또래지지의 상호작용



[그림 2] 여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에 대한 자아탄력성과 가족지지의 상호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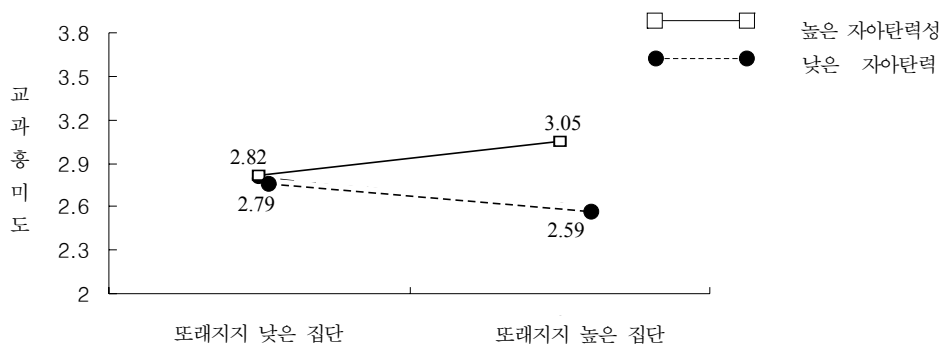
2) 성에 따른 교과 흥미도에 대한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효과

성에 따라 교과 흥미도에 관련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성에 따라 교과 흥미도에 대한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에 따른 아동의 교과 흥미도를 선 그래프로 나타내보고, 추가적인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상호작용효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여학생은 교과 흥미도에 대하여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효과가 없었으나, 남학생은 교과 흥미도에 대하여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효과가 [그림 3]과 같이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이 높은 남학생은 낮은 남학생보다 또래지지가 교과 흥미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탄력성이 높은 남학생의 교과 흥미도가 자아탄력성이 낮은 남학생의 교과 흥미도보다 또래지지에 의해 영향 받는 정도가 컸으며, 자아탄력성이 높은 남학생은 또래 지지가 높을수록 교과흥미도가 높아졌으나, 자아탄력성이 낮은 남학생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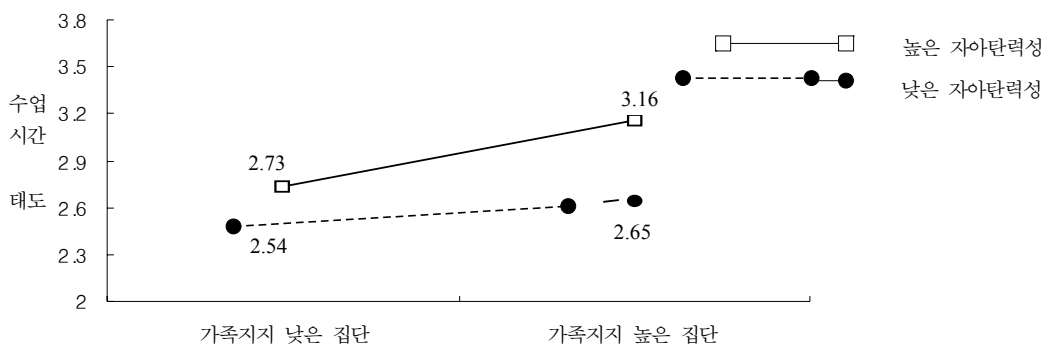
또래지지가 높을수록 교과흥미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성에 따른 수업시간 태도에 대한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효과

성에 따라 수업시간 태도에 대한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에 관련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성에 따라 수업시간 태도에 대한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에 따른 아동의 수업시간 태도를 선 그래프로 나타내보고 추가적인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상호작용효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여학생은 수업시간 태도에 대하여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는 상호작용효과가 없었지만 남학생은 수업시간 태도에 대하여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효과가 [그림 4]와 같이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이 높은 남학생이 낮은 남학생보다 가족지지가 수업시간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탄력성이 높은 남학



[그림 3] 남학생의 교과 흥미도에 대한 자아탄력성과 또래지지의 상호작용



[그림 4] 남학생의 수업시간 태도에 대한 자아탄력성과 가족지지의 상호작용

생의 수업시간 태도가 자아탄력성이 낮은 남학생의 수업 시간 태도보다 가족지지에 의해 영향 받는 정도가 컸으며,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남학생과 낮은 남학생이 모두 수업시간 태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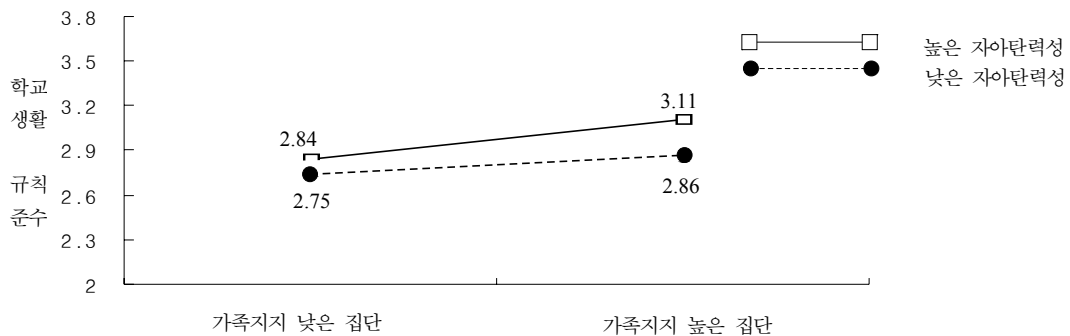
4) 성에 따른 학교생활 규칙준수에 대한 자아탄력성과 사회적지지의 상호작용효과

성에 따라 학교생활 규칙준수에 관련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성에 따라 학교생활 규칙준수에 대한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에 따른 아동의 학교생활 규칙준수를 선 그래프로 나타내보고, 추가적인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상호작용효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남학생의 학교생활 규칙준수에 대하여 자아탄력성과 가족지지의 상호작용효과는 [그림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아탄력성이 높은 남학생이 낮은 남학생보다 가족지지가 학교생활 규칙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학교생활 규칙준수에 대하여 자아탄력성과 가족지지의 상호작용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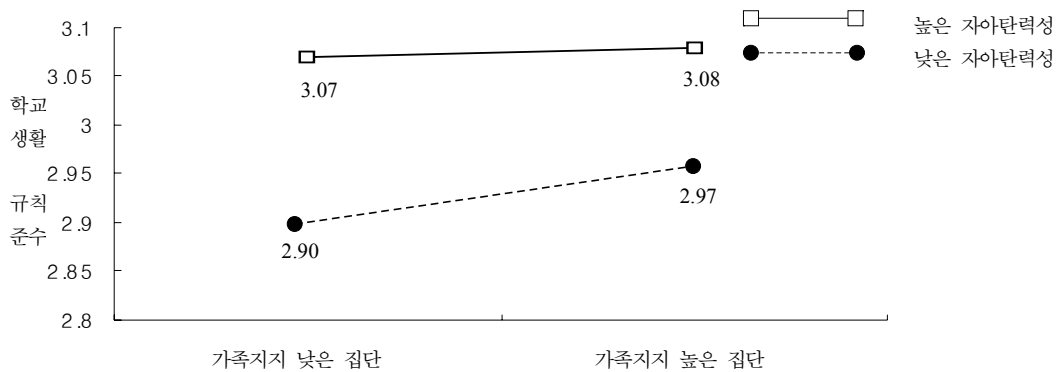
는 [그림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아탄력성이 낮은 여학생이 높은 여학생보다 가족지지가 학교생활 규칙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탄력성이 높은 남학생의 학교생활 규칙준수가 자아탄력성이 낮은 남학생의 학교생활 규칙준수보다 가족지지에 의해 영향 받는 정도가 컸으며, 자아탄력성이 낮은 남학생의 학교생활 규칙준수가 자아탄력성이 높은 여학생의 학교생활 규칙준수보다 가족지지에 의해 영향 받는 정도가 컸다.

3. 연령에 따른 학교적응에 대한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효과

연령에 따른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 학교적응과의 상관관계와 각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다. 변인들의 분산팽창계수 VIF값을 살펴본 결과 모든 값이 3보다 작은 값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보이지 않아 각 변인들은 독립적인 개념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 남학생의 학교생활 규칙준수에 대한 자아탄력성과 가족지지의 상호작용



[그림 6] 여학생의 학교생활 규칙준수에 대한 자아탄력성과 가족지지의 상호작용

〈표 3〉 연령에 따른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 학교적응과의 상관관계

		6학년							
4학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①	1	.56***	.41***	.21**	.16**	-.01	.33***	.16**
	②	.51***	1	.45***	.36***	.26***	.07	.32***	.25***
	③	.29***	.46***	1	.30***	.16**	.16**	.36***	.17**
	④	.38***	.44***	.23***	1	.42***	.35***	.42***	.24***
	⑤	.26***	.28***	.18**	.41***	1	.48***	.48***	.32***
	⑥	.20**	.22**	.23***	.35***	.41***	1	.49***	.24***
	⑦	.42***	.46***	.22**	.40***	.48***	.38***	1	.39***
	⑧	.32***	.47***	.27**	.36***	.32***	.21**	.42***	1
4학년	M	2.77	3.06	3.46	2.81	3.00	2.98	2.76	3.05
	SD	.41	.50	.50	.55	.54	.65	.50	.50
6학년	M	2.77	3.02	3.31	2.68	2.89	2.85	2.57	2.72
	SD	.41	.44	.58	.49	.53	.66	.48	.56

p<.01. *p<.001. 상관표의 대각선 왼쪽 아래는 4학년 자료이며, 오른쪽 위는 6학년 자료임.

- ① 자아탄력성 ② 또래지지 ③ 가족지지 ④ 교사지지
 ⑤ 학교생활 만족도 ⑥ 교과흥미도 ⑦ 수업시간 태도 ⑧ 학교생활 규칙준수

연령에 따른 학교적응에 대한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간의 상호작용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 2단계로 수행되었다. 학교적응의 학교생활 만족도, 교과 흥미도, 수업시간 태도, 학교생활 규칙준수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자아탄력성과 또래지지, 가족지지, 교사지지 4개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한 모형을 기본모형으로 설정하였으며, 추가모형은 기본모형에 사회적 지지의 3개변인 각각과 자아탄력성간의 상호작용 항을 포함시킨 모형으로 설정하였다.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모든 하위 변수를 센터링(centering)하여 다중공선성을 감소시킨 후 ‘자아탄력성 X 사회적 지지’의 항을 만들어 센터링한 모든 항과 상호작용 항을 독립변수로, 학교적응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 2단계를 실시하였다. 모형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기본모형과 추가모형의 R^2 을 산출한 뒤에 R^2 의 증가량이 유의미한지 살펴보았다. 여기서, R^2 의 증가량이 유의미하다는 것은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R^2 의 증가량이 유의미하지 않는 경우에도 우연적으로 상호작용효과는 있을 수 있다.

1) 연령에 따른 학교생활 만족도에 대한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효과

연령에 따라 학교생활 만족도에 관련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다. 연령에 따라 학교생활 만족도에 대한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에 따른 아동의 학교생활 만족도를 선 그래프로 나타내보고, 추가적인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상호작용효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6학년 학생은 학교생활 만족도에 대하여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효과가 없었으나, 4학년 학생은 학교생활 만족도에 대하여 자아탄력성과 또래지지의 상호작용효과가 [그림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아탄력성이 높은 4학년 학생이 낮은 4학년 학생보다 또래지지가 학교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학년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에 대하여 자아탄력성과 가족지지의 상호작용효과가 [그림 8]과 같이 자아탄력성이 낮은 4학년 학생이 높은 4학년 학생보다 가족지지가 학교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탄력성이 높은 4학년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자아탄력성이 낮은 4학년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보다 또래지지에 의해 영향 받는 정도가 컸으며, 또래의 지지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4학년 학생과 낮은 4학년 학생은 모두 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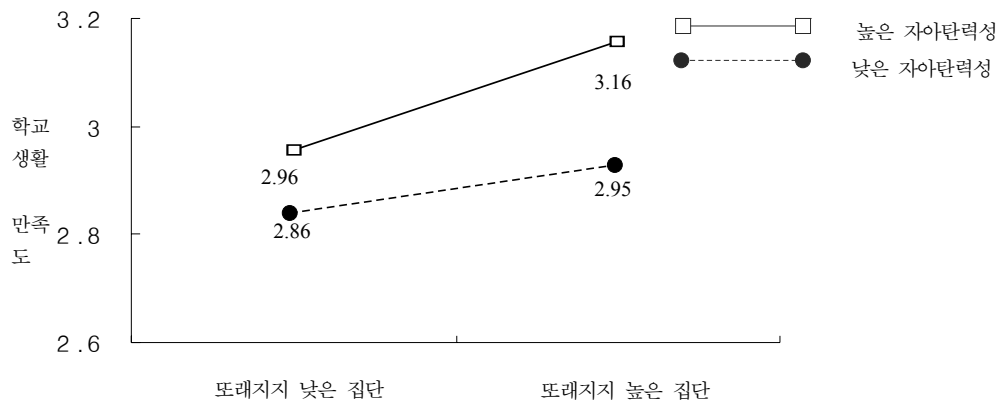
교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탄력성이 낮은 4학년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자아탄력성이 높은 4학년 학생과 낮은 4학년 학생 모두는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았다.

〈표 4〉 연령에 따른 학교 적응에 대한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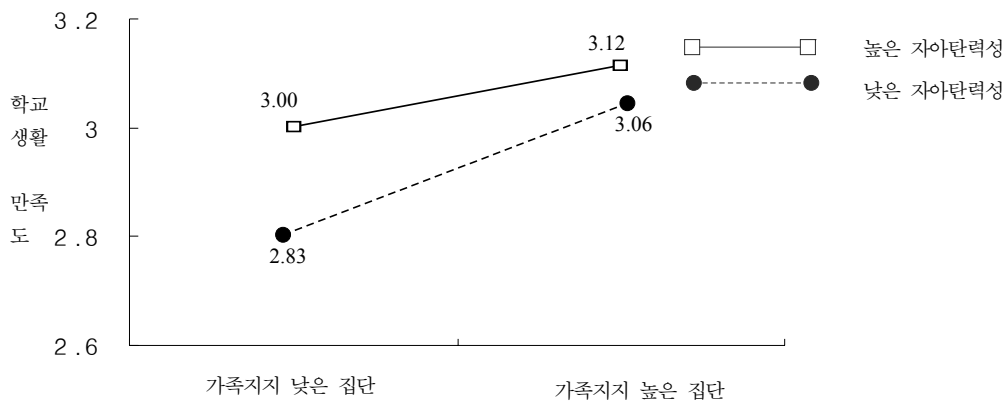
※ 4학년(6학년)

종속변수	독립변수	표준화된 β	
		Model 1	Model 2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자아탄력성	.08 (.02)	.08 (.01)
	또래지지	.07 (.12)	.06 (.12)
	가족지지	.05 (-.01)	.02 (-.01)
	교사지지	.34*** (.37***)	.39*** (.36***)
	자아탄력성 × 또래지지		.29** (-.08)
	자아탄력성 × 가족지지		-.25** (.01)
	자아탄력성 × 교사지지		-.10(.05)
	ΔR^2	.191*** (.190***)	.053** (.003)
	R^2	.191(.190)	.244(.193)
교과 흥미도	자아탄력성	.05 (-.10)	.06 (-.07)
	또래지지	.00 (-.05)	.01 (-.02)
	가족지지	.14* (.12)	.14* (.12)
	교사지지	.30*** (.37***)	.31*** (.36***)
	자아탄력성 × 또래지지		.14(.15)
	자아탄력성 × 가족지지		-.07(.02)
	자아탄력성 × 교사지지		.01(-.02)
	ΔR^2	.145*** (.140***)	.015(.021)
	R^2	.145(.140)	.161(.161)
수업시간 태도	자아탄력성	.21** (.18**)	.23** (.17*)
	또래지지	.27*** (.02)	.28*** (.02)
	가족지지	-.01 (.18**)	-.01 (.22**)
	교사지지	.20** (.32***)	.22** (.33***)
	자아탄력성 × 또래지지		.15(-.10)
	자아탄력성 × 가족지지		-.03(.21**)
	자아탄력성 × 교사지지		-.02(.00)
	ΔR^2	.292*** (.270***)	.015(.024*)
	R^2	.292(.270)	.307(.295)
학교생활 규칙준수	자아탄력성	.08 (.03)	.09 (.00)
	또래지지	.35*** (.15)	.35*** (.13)
	가족지지	.00 (.04)	.01 (.05)
	교사지지	.18** (.17*)	.19** (.17*)
	자아탄력성 × 또래지지		.09(-.15)
	자아탄력성 × 가족지지		.03(.06)
	자아탄력성 × 교사지지		-.06(.01)
	ΔR^2	.254*** (.091***)	.007(.011)
	R^2	.254(.091)	.260(.102)

*p<.05. **p<.01. ***p<.001.



[그림 7] 4학년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에 대한 자아탄력성과 또래지지의 상호작용



[그림 8] 4학년의 학교생활 만족도에 대한 자아탄력성과 가족지지의 상호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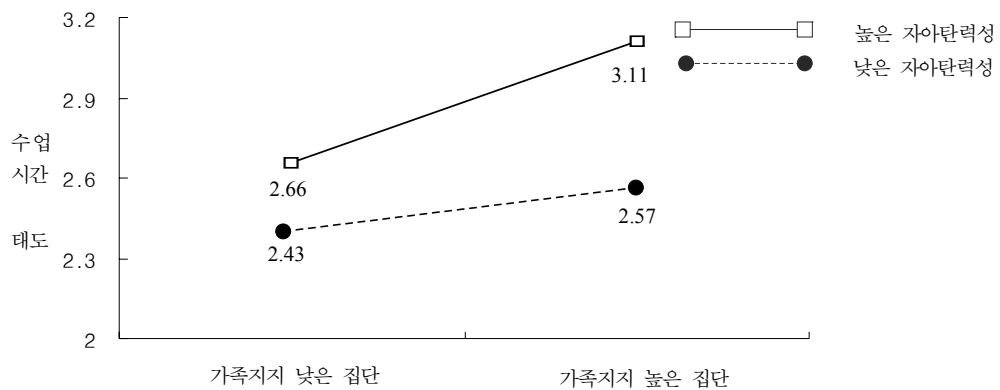
2) 연령에 따른 교과 흥미도에 대한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효과

연령에 따라 교과 흥미도에 관련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다. 연령에 따라 교과 흥미도에 대한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효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4학년 학생과 6학년 학생 모두는 교과 흥미도에 대하여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효과가 없었다.

3) 연령에 따른 수업시간 태도에 대한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효과

연령에 따라 수업시간 태도에 대한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에 관련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표 4>에 나

타난 바와 같다. 연령에 따라 수업시간 태도에 대한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효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4학년 학생은 수업시간 태도에 대하여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는 상호작용효과가 없었지만 6학년 학생은 수업시간 태도에 대하여 자아탄력성과 가족지지의 상호작용효과가 [그림 9]에 제시된 것과 같이 자아탄력성이 높은 6학년 학생이 낮은 6학년 학생보다 가족지지가 수업시간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탄력성이 높은 6학년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자아탄력성이 낮은 6학년 학생의 수업시간 태도보다 가족지지에 의해 영향 받는 정도가 컸으며, 가족의 지지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모두 수업시간 태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9] 6학년 학생의 수업시간 태도에 대한 자아탄력성과 가족지지의 상호작용

4) 연령에 따른 학교생활 규칙준수에 대한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 효과

연령에 따라 학교생활 규칙준수에 관련된 위계적 회귀 분석 결과는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다. 6학년 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 항을 추가한 Model 2에서 추가된 R^2 은 .011로 유의한 설명량을 보이지 않았다. 연령에 따라 학교생활 규칙준수에 대한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효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4학년 학생과 6학년 학생 모두는 학교생활 규칙준수에 대하여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효과가 없었다.

V. 논의 및 결론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성과 연령에 따라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상호작용하여 학교적응을 어느 정도 예측하는지를 살펴본다 가정과 학교 내에서 아동의 학교적응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확인해보고, 실제 부모교육이나 상담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에 따라 학교적응에 대해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간의 상호작용효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 또래지지와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해주고 있는 결과이다. 또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양국선, 장성숙, 2001)에 비추어 볼 때 또래지지와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여학생은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교과 흥미도에 대해 여학생은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자아탄력성이 높은 남학생은 또래지지가 높을수록 교과 흥미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아탄력성이 낮은 남학생은 또래지지를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교과흥미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서도 제시 하였듯이 교과에 대한 낮은 흥미는 결국 학교생활에 부적응하게 된다는 결과로 보아 자아탄력성이 낮은 남학생은 또래의 지지를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남학생의 경우 또래의 지지를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행을 일으킨다고 보고한 이은주(2003)의 연구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해주고 있다. 아동에게 있어 또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따라서 또래집단과의 문제는 학교환경을 적대적으로 만드는 원인이 되며, 아동은 또래 집단에 소속되기를 원하고 또래의 영향을 쉽게 받는다. 또래문화가 학습적인 경우 또래의 사회적 지지는 학교적응에 긍정적일 수 있으나 만약 또래문화가 비행적인 경우에는 학교적응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지혜, 1998). 또한 자아탄력성이 높은 집단은 낙천적이며 자율적이고 능동적이다(Klohen, 1996). 반면 자아탄력성이 낮

은 집단은 상황의 요구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유효하게 동원하는 능력이 떨어지며 환경에 대처하는데 어려움을 느껴 사회적 지지가 많이 주어졌어도 잘 활용하지 못한다(고은정, 1996). 따라서 자아탄력성이 낮은 남학생은 또래문화가 비행적인 경우에 또래의 영향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 학교적응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쳐 결국 학교적응이 낮아지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가족의 지지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남학생과 낮은 남학생이 모두 수업시간 태도가 좋았다. 이는 정은진(2001)의 연구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학교수업시간의 태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를 지지해주고 있다. 또한 사회적 지지는 직접적으로 인지 능률성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동기와 인지 능률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아동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끼친다고 한 연구결과가 있다(이은해, 1991). 이를 통해 볼 때, 가족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아동은 독자적으로 성취하고자 하고 도전적인 동기 지향성을 갖게 되며, 이러한 내적 동기 지향성이 인지 능률성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게 만들고, 인지 능률성에 대한 긍정적 지각이 다시 학업성취에 정적 영향을 끼쳐 수업시간 태도가 좋은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가족의 지지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남학생과 여학생, 낮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서 학교생활의 규칙을 잘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정구(1999)의 연구에서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학교규칙이 적응에 있어 유의미한 설명 변수로 확인 된 점이 본 연구와 일치한다. 그러나 남학생과 달리 자아탄력성이 낮은 여학생의 학교생활 규칙준수가 자아탄력성이 높은 여학생의 규칙준수보다 가족의 지지가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로써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 가족의 지지가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의 지지가 남학생에게는 문제행동에 완화효과가 적은데 비해 여학생에게는 가족지지가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주요 요인임을 보고한 Windle(1992)과 초등학교 남아보다 여아에게서 가족의 지지가 더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는 김애경(2003)의 결과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이는 여아들이 관계 중심적이며 가족 지향적이고 정서적 욕구가 높아 남학생보다 가족의 지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연령에 따라 학교적응에 대해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효과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 만족도에 대해 6학년의 경우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4학년 학생의 경우 가족의 지지와 또래의 지지가 높아질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4학년 학

생과 낮은 4학년 학생은 모두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은주(2003)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연령이 어릴수록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지지해주고 있다. 앞에서도 논의 하였듯이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높으며,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학교적응이 높다는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연령이 높아질수록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므로 연령에 따라 아동이 학교생활에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연령에 따른 교과 흥미도에 대해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간의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4학년과 6학년 학생에게서 교사지지는 교과 흥미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가족지지는 4학년 학생의 교과 흥미도에 대해서만 설명력을 가졌다. 선행연구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또래의 지지를 높게 지각하고 연령이 어릴수록 가족의 지지를 높게 지각한다고 보고 했다(강민주, 전경숙, 1995; Furman & Buhrmester, 1992). 이는 연령이 어릴 때 가족의 지지를 중요하게 지각하다가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족의 지지를 보다 덜 중요하게 인식함에서 나타난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심희옥(2000)은 아동에게 가족의 사회적 지지는 수직적인 관계인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보호와 안전이 제공된다고 보았으며 가족의 정신적인 지지가 아동의 발달과 적응에 중요하다고 보아 4학년 아동에게 가족의 지지는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가족의 지지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6학년 학생과 낮은 6학년 학생에게서 수업시간 태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태도 면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이 낮게 나타난다는 최희옥 외(2005)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되지만 유윤희(1994)의 연구와는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한편 이재구(2000)는 학업기대 유형 중 어머니의 지지가 낮을수록 아동의 학업성취도가 낮아진다고 하였다.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부모의 학업기대가 커짐으로 인해 어머니의 학업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고 이는 아동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쳐 수업시간 태도가 좋아지는 결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셋째, 본 연구결과 성과 연령에 따라 공통적으로 교사 지지가 학교생활적응의 하위변인인 학교생활 만족도, 교과 흥미도, 수업시간 태도, 학교생활 규칙준수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있어 교사의 지지가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차유림(2000)의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 또한 교사의 지지를

많이 받은 아동은 학업성적과 유의한 관계(강성희, 이재연, 1991)를 보였으며, 심리적 우울을 적게 느낀다는 결과(Dubois *et al.*, 1992)들을 통해 교사의 지지가 초등학교 아동의 학교적응에 있어 교사지지와 같은 학교체계의 특성이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아동이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동들을 유발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전체적으로 학교적응의 하위변인인 학교생활 만족도, 교과 흥미도, 수업시간 태도, 학교생활 규칙준수의 모든 영향력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교생활 적응력이 더 높았다. 이는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 연구(윤종옥, 1997; 주현정, 1998; Forehand *et al.*, 1986; Kurdek & Sinclair, 1988)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한다는 결과와 맥을 같이하고 있으며, 학교 분위기, 특별 활동, 인지기술영역, 학교환경 등에서는 남학생이 적응을 잘하나, 교우관계, 수업참여나 학교의 규칙 등의 학교생활 전반에서는 여학생이 더 잘한다는 선행연구의(배숙진, 1988; 유상철, 1984; 윤종옥, 1997; 조중현, 1984) 결과를 감안해볼 때,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잘 적응하는 하위변인으로 포함된 본 연구의 척도로 인하여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교적응의 하위변인인 학교생활 만족도, 교과 흥미도, 수업시간 태도, 학교생활 규칙준수의 모든 영향력은 4학년 학생이 6학년 학생보다 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높은 아동은 학교적응이 낮음을 보여준다. 이는 최장숙(1993)과 신철재(1995)의 고학년이 저학년보다 학교적응이 낮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해주고 있다. 또한 김승미(1998)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학생이 초등학생보다 학교적응이 낮았으며, 중학생에서도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교적응이 낮아졌다는 결과(구자은, 2000)로 연령이 높은 아동은 학교적응이 낮아지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아동들은 시험 및 학업에 대한 주변의 기대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이로 인해 다양한 학업 스트레스들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아동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에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서로 상호작용하여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에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아동의 학교적응에는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단편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서로 상호작용하여 미친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

본 연구는 남학생의 경우 자아탄력성과 또래지지가 상호작용하여 교과 흥미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자아탄력성과 가족지지가 상호작용하여 학교생활 규칙준수에 영향을 미쳤다. 반면, 여학생의 경우는 자아탄력성과 또래지지의 상호작용, 자아탄력성과 가족지지의 상호작용이 학교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고, 자아탄력성과 가족지지의 상호작용이 수업시간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성에 따라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상호작용하여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데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자아탄력성과 또래지지, 자아탄력성과 가족지지가 상호작용하여 4학년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으나, 자아탄력성과 가족지지의 상호작용은 6학년 학생의 수업시간 태도에 영향을 미쳐 연령에 따라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데 상의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성과 연령에 따라 학교적응에 대해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 효과가 상의한 것을 통해 성과 연령을 나누어 학교적응에 대한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본 연구가 타당하였음을 본 연구는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본 연구가 제안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결과에서는 아동의 학교적응에 교사지지의 영향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에게 부모 이외의 타인 중 중요한 인적자원인 교사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를 본 연구에서는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후속연구는 교사지지를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본 연구결과를 통해 학교적응에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지만, 가족, 또래, 교사는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요인이다. 그러므로 후속연구는 이 세 변인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결과 남학생의 또래지지가 교과흥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또래관계가 부정적인 사회적 지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후속연구에서는 또래와의 관계의 본질을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주제어: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 학교적응

참 고 문 헌

- 강민주, 전경숙. (1995).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자기능력 지각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16(1), 197-210.
- 강성희, 이재연. (1991). 아동의 적응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문제해결 기술의 스트레스 완충 효과에 대한 연구. **아동학회지**, 13(2), 175-188.
- 고은정. (1996). 애착유형에 따른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고혜진. (2003). 부모의 양육태도와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생활적응능력과의 관계. 인천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구자은. (2000). 자아탄력성, 긍정적 정서 및 사회적 지지와 청소년의 가정생활적응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지은. (2003). 부모 및 또래 애착, 문제해결방식과 자아탄력성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명숙. (1994).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부적응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승미. (1998). 초등학교와 중학생에서 사회적 지지가 일상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애경. (2003). 부모의 갈등 및 사회적 지지와 내재통제성이 초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0(3), 351-372.
- 김옥선, 오윤자, 최명구. (2005). 초등학교가 지각한 가족 건강성과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19(3), 761-777.
- 김윤희, 황순택. (2003). 부모갈등이 아동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43-362.
- 김지혜. (1998). 청소년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지지체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태희. (1996).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의 관계 만족도-청소년 발달, 중년기 변화, 대학입시와 관련하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홍재. (1995). 아동기의 A/B유형 행동양식에 따른 학교 생활적응 및 학업성취도 차이분석.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희수. (2004). 저소득 가정 아동의 비행행동에 대한 환경적 요인들의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남상인. (1983).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인지양식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노숙영. (1998). 중학생의 학교적응, 학업성취, 정서 및 문제행동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수정. (1998). 부모의 양육태도와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관한 연구 - 아동의 지각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원희, 오윤자. (2008). 초등학교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양식. **아동교육**, 17(4), 167-176.
- 박현신. (1999). 고위험 빈곤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한국사회복지학**, 37(4), 195-216.
- 배숙진. (1988). 청소년에게 지각된 부모의 양육 태도, 자아개념, 학교적응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창용. (2003). 초등학교 아동의 스트레스와 대처방법 및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나나, 도현심. (2000). 청소년의 자아개념에 대한 부모-자녀관계와 학교생활 적응간의 상호작용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3), 99-113.
- 신윤자. (2005).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연구. 공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철재. (1995). 학교생활적응, 자아개념 및 학업성취간의 상관관계.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심희옥. (2000). 또래지지와 대인관계 갈등 대처방법 및 사회적 기술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1(1), 19-33.
- 양국선, 장성숙. (2001). 한국적응유연성과 관련된 보호요인 특성연구 : 야간실업고등학교 근로청소년 대상. **한국심리학회지**, 12(3), 127-148.
- 유상철. (1984).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태도연구: 고교생들의 느낌의 차원에서. **교육논총**, 3, 374-437.
- 유성경, 심혜원. (2002). 적응 유연한 청소년들의 심리적

- 보호요소 탐색. **교육심리연구**, 16(4), 189-206.
- 유성경, 홍세희, 최보윤. (2004). 가정의 위험요소와 적응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 애착, 실존적 영성의 매개효과 검증. **교육심리연구**, 18(1), 393-408.
- 유윤희. (1994). 학교적응 불안, 학업성취간의 관계 분석.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종욱. (1997). 가정의 과정환경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은미, 박인전. (2002). 부모자녀 유대관계와 아동의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한국가족복지학**, 7(1) 3-24.
- 이은주. (2003).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행동과 학교생활 만족도와의 관계.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은혜. (1991). 아동의 인지 능률성, 동기 지향성, 사회적 지원과 학업성취간의 관계. **유아교육연구**, 11, 71-89.
- 이재구. (2000). 부모의 학업기대 유형과 청소년의 적응.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구. (1999). 학교생활적응과 가족환경이 중학생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윤, 이경아. (2004). 초등학생의 학교적응과 관련된 개인 및 가족요인. **한국심리학회지**, 16(2), 261-276.
- 이훈진. (1999).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정순. (1993). 아동의 의존성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호성. (1988). 자아개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성인. (1998). 아동의 사회적 지지에 따른 일상적 스트레스 및 적응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은진. (2001).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 자아개념, 학교적응간의 관계.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종현. (1984). 고교생의 학교생활 적응문제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주현정. (1998). 고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차유립. (2000). 아동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청소년 생활통계연보 (2002).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결과-학교생활**. 한국사회조사연구소.
- 최상미. (2003). 초등학생이 지각하는 교사문화와 학생의 학교생활만족에 대한 연구. 인천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장숙. (1993). 초등학교 아동의 충동성 성격 특성이 학교 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진아, 이숙. (1996). 아동의 사회적 지지지각 및 만족도와 적응능력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4), 1-12.
- 최희욱, 문재우, 박재산. (2005). 가족내 갈등과 학교 부적응간의 관련성 분석. **보건과 사회과학**, 17, 79-106.
- 한미라. (1997).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 스트레스 및 학교생활 부적응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현은민, 박혜영. (2005). 시설보호아동·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1), 19-29.
- Bagwell, G. L., Newcomb, A. F. & Bukowski, W. M. (1998). Preadolescent friendship and peer rejection as predictors of adult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9(1), 140-153.
- Barrera, M. (1986). Distinctions between social support concepts, Measures, and model.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4), 413-445.
- Berndt, T. J., & Keefe, K. A. (1995). Friends's influence on adolescents' adjustment to school. *Child Development*, 66(5), 1312-1329.
- Birch, S. H., & Ladd, G. W. (1997). The teacher-child relationship and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5(1), 61-79.
- Block, J. & Kremen, A. M. (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49-361.
- Block, J. H., & Block, J. (1980).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W. A. Collins(Ed.),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13, 39-101. Hillsdale, NJ:Erlbaum.
- Bonanno, G. A. (2004). Loss, trauma, and human

- resilience: Have we understand the human capacity to thrive after extremely aversive event? *American Psychologist*, 59, 20-28.
- Brown, L. P., & Cowen, E. L. (1989). Stressful life events, support, and children's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3), 214-220.
- Cicchetti, D., & Toth, S. L. (2000). Editorial : Social policy implications of research i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2(4).
- D'Abreu, R. C., Mullis, A. K., & Cook, L. R. (1999). The resiliency of street children in Brazil. *Adolescence*, 64, 745-751.
- Dubois, D. L., Flner, R. D., Brand, S., Adan, A. M., & Evans, E. G. (1992). A prospective study of life stress, social support, and adaptation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3(3), 542-557.
- Dubow, E. F., & Tisak, J. (1989). The relation between stressful life events and adjustmen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relation of social support and social problem-solving skills. *Child Development*, 60, 502-517.
- Felner, R. D. (1984). Vulnerability in childhood: A preventive framework for understanding children's efforts to cope with life stress and transitions. In M. S. Roberts & L. Peterson (Eds.), *Prevention of problems in childhood: Psychological research and applications*(pp. 133-169). New York: Wiley.
- Felner, R. D., Ginter, M., & Primavera, J. (1982). Primary prevention during school transition : Social support and environment structure.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0, 277-290.
- Forehand, R., Long, N., Brody, G. H., & Fauber, R. (1986). Home Predictors of Young Adolescents' School Behavior and Academic Performance. *Child Development*, 57(6), 1528-1533.
- Furman, W., & Buhrmester, D. (1992). Age and sex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networks of personal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63(2), 103-115.
- Garnezy, N. (1983). Stressors of childhood. In N. Garnezy & M. Rutter (eds.), *Stress, coping, and development in children*(pp.43-84). New York: McGraw-Hill.
- Gifford-Smith, M. E., & Brownell, C. A. (2003). Childhood peer relationships: Social acceptance, friendships, and peer networks.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1(4), 235-284.
- Klohen, E. C. (1996). Conceptual analysis and measurement of the construct of ego-resili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70(5), 1067-1079.
- Kurdek, L. A., & Sinclair, R. J. (1988) Relation of 8 graders' family structure, gender, and family environment with academic performa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0(1), 90-94.
- Ladd, G. W., Kochenderfer, B. J., & Coleman, C. C. (1996). Friendship quality as a predictor of young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3), 1103-1118.
- Masten, A. S. (2001). Ordinary magic: Resilience process in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56, 227-238.
- Rak C. F., & Patterson, L. E. (1996). Promoting resilience in at-risk children.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4, 368-373.
- Simons-Morton, B. G., & Crump, A. D. (2003). Association of parental involvement and social competence with school adjustment and engagement among sixth graders. *Journal of School Health*, 73(3), 121-126.
- Van Aken, M.A.G., Asendorpf, J.B. (1997). Support by parents, classmates, friends and siblings in preadolescence: Covariation and compensation across relationship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4(1), 79-94.
- Wertlieb, D., Weigel, C., & Feldstein, M. (1987). Stress, social support, and behavior symptoms in middle childhood.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6, 204-211.
- Wethington, E., & Kessler, R. C. (1986). Perceived

support, received support and adjustment to stressful life event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7, 78-89.

Windle, M. (1992). A longitudinal study of stress buffering for adolescent problem behaviors. *Developmental Psychology*, 28(3), 522-529.

접 수 일 : 2010. 09. 01.
수정완료일 : 2010. 11. 05.
게재확정일 : 2010. 11. 19.